

보도자료

이 자료는 6월 28일(금)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7일(목) 17: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4년도 한국은행 울산본부.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세미나 개최 결과

- 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이강원)는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와 공동으로 6.27일(목) 「**울산의 서비스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울산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일 시 : 2024.6.27일(목) 14:00
 - 장 소 : 롯데호텔 울산 3층 샬롯데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2024년도 한국은행 울산본부.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세미나 주요내용 1부.
<참고> 세미나 개요 1부.

문의처: 울산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이상진

전화 052-259-7421, 팩스 052-259-7491, 이메일 ulsaneco@bok.or.kr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사원 유강민

전화 052-228-3074, 팩스 052-271-2116, 이메일 rkdals0925@ucci.or.kr

“한국은행 울산본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ok.or.kr/ulsan>)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붙임)

2024년도 한국은행 울산본부·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세미나 주요내용

- 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이강원)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은 6.27일(목) 롯데호텔 울산에서 「울산의 서비스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미나에서는 ① ‘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울산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과제’, ② ‘울산의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 후 토론을 진행

(주제발표)

- **[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울산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과제]**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은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의 진전 및 활용 등 다양한 변화 요인에 의해 참여 경제 주체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울산도 제조업 기반 성장의 둔화와 서비스산업에의 수요 확산, 경제의 서비스화를 모색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흐름, 지리적·시간적 제약에서 탈피하려는 서비스산업에서의 급격한 혁신의 모습 등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울산은 제조업 기반 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된 사업체·종사자수·매출액 등 산업 기반이 미미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유치, ② 서비스산업 육성을 주도할 전문기관 설립과 함께 시설, 장비 등 혁신 지원기반 구축, ③ 울산대학교·UNIST와 같은 대학교를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④ 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방향 모색, ⑤ 서비스산업 발전 조례 제정, 전담 조직 마련 등 추진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

□ **[울산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울산연구원 이경우 실장은 “울산의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은 개별적 서비스업종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울산이 당면한 이슈인 ‘경제 저성장과 인구(청년)유출’로부터 출발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수단으로써의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 경제 저성장 및 산업구성의 불균형 문제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고부가 연구개발·지식서비스업 등의 육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인구(청년)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의 역외유출 억제 및 지역 도소매·음식·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집객 인프라 확충, 관광·문화 인프라 조성을 통한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육성, 교육·의료보건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인력양성 등이 긴요

(토론)

□ **울산과학기술원 김영춘 교수**는 울산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이유로 “산업 측면에서 하드웨어 위주 산업구조의 다변화·유연화가 필요하며, 일자리와 고용의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를 증진시키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이러한 장기적인 변화 속에서 전통적 산업분류에 맞지 않는 새롭게 생겨나는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

-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존재한다는 점과 울산 지역에 다양한 지역적 환경(제조업, 상업 도심지구, 해변지역, 산악지역, 도시외곽 농어촌 지역 등)이 존재한다는 점, 주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언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상식 기획연구팀장**은 “서비스산업이 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무형의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인만큼 사람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인재 의존성이 더욱 심하여 이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한다”고 강조

- “필요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과감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꼭 필요하다면 국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외 인재 유치도 과감하게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언

□ **KDI 송영관 선임연구위원**은 “울산은 경제성장의 측면과 삶의 질 측면에서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으뜸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삶의 질 개선과 젊은층 유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

- 구체적인 중점육성대상 산업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젊은 층을 위한 교육서비스(UNIST) 및 다양한 여가 서비스, 제조업 관련 연구개발서비스, 폐기물처리 관련 취업자 수 증가율을 늘릴 수 있는 환경서비스 등”을 언급

□ **한국은행 울산본부 임시영 기획조사팀장**은 “울산지역의 서비스 산업 육성은 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② 살기 좋은, ③ 누구나 일하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

- “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신산업 혁신흐름의 메가트렌드에 맞추어 지역내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 ② 생활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생활소비 서비스인프라 확충(교통, 유통,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③ 청년 및 여성의 유출을 막기 위한 고속련·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

- “울산의 서비스산업 육성이 제조업 도시에서 서비스업 성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도시 인구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참고>

세미나 개요

1. 일시: 2024.6.27일(목), 14:00~16:20
2. 장소: 롯데호텔 울산 3층 샤롯데룸
3. 주제: 울산의 서비스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4. 주최: 한국은행 울산본부, 울산상공회의소

시간	세부 내용
14:00~14:30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기념촬영 포함)
14:30~15:15 (45분)	<주제발표> 울산의 서비스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세션1: 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울산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과제 (발표자)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세션2: 울산의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자)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15:15~16:05 (50분)	<종합토론> 좌장 : 김주훈 前 KDI 부원장 토론 : 송영관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문상식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획연구팀장 김영춘 울산과학기술원 경영과학부 교수 임시영 한국은행 울산본부 기획조사팀장
16:05~16:20	질의응답 및 폐회